

# “분열은 필패인데...” 호남 민심 ‘이낙연 신당설’에 낙심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연대설까지 거론돼 실망감 커져 계파 갈등 증폭 우려...민주, 통합 기조 속 인재영입에 집중

총선을 넉 달 가량 남겨놓은 상황에서 호남지역에 때어난 신당 창당과 사쿠라 논쟁이 일면서 지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24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지난 대선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분열 논란에 휩싸이자 벌써 총선 실패를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늘고 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 (변절한 정치인)라고 비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지난 대선 패배를 교훈 삼아 내년 총

선과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이 더 이상 반목하거나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언급은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연대설까지 거론되면서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과 이 대표의 당내 입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명계 등의 당내 연쇄 이탈마저도 우려되는 탓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며 보폭을 넓혀 온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창당 시점까지 거론했다.

일단 당내에서는 당장 비명계의 탈당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데다 이 전 대표의 독자 세력화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이낙연 신당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분위기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뛰어들 세력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추후 독자행동에 돌입할 경우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에 당내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이달 안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태다.

이와 함께 신당 창당 논란은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 (변절한 정치인)라고 비난하자 비명계 의원들이 김 의원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한데서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 전 대표와 비명계 세력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소통과 통합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필패”라며 최근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상태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진정성 있게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재 영입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지도부도

현재로서는 이낙연 신당 등에 대한 대응 논의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연대설’이 불거지기도 했던 만큼 이 대표의 전직 총리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일대일 만남을 조울 중이다.

다만 물밑에서 추진되던 이른바 ‘명낙 회동’은 이 전 대표의 완강한 입장 때문에 성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20일쯤 두 분(정세균-김부겸)과 따로 따로 만나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이 대표와의 직접적 소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서울의 봄” 짓밟은 전두환 비자금 회수해야”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두환 비자금 회수 위한 ‘전두환 추징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창당 운운, 대선 패배만큼 고통”

### 신정훈 의원 SNS서 비판...“민주당 원팀 승리 응대해주길”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전남도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낙연 대표의 신당 행보, 0.73%의 대선 패배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누구보다 호남과 민주당의 사랑을 받아 온 대표님이시기에 작금의 신당 운운은 감당하기 어렵고 혼란스럽다. 정말 신당을 창당하실 생각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도민들은 한 번의 패배는 감당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열과 패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도민들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비난도, 탈당자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대표님의 행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



다.

또 “저는 현재의 민주당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며 “민주당의 울타리 안에서 수 많은 당원의 사랑을 받았고 당의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당을 향해 칼을 드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용케 보여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온갖 독설과 비난으로 민주당을 헐뜯고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라 설득하지 못할정정 판살림을 같이 차리자는 건 당신을 따르던 수 많은 도민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다”며 “원팀 민주당으로 승리를 염원하는 전남도민과 당원들의 목소리에 응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서울의 봄 절로 오지 않아...역사 퇴행 막겠다”

### ‘12·12사태’ 44년...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에 메시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12와 관련해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참전 군인들의 영령 앞에서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다”며 “나라를 지켜야 할 총칼로 국민에게 부여된 권력을 찬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오지 않았다”며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으며 자라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절망적인 후퇴를 반복하는 것 같아도 역사는 늘 전진한다”며 “피로 정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윤핵관 가고 용핵관 올 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측근을 총선에 출마시키려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물러난 자리에 ‘용핵관’ (용산 핵심 관계자), ‘용핵검’ (윤 대통령 측근 핵심 검사) 등을 앉혀 진짜 자신만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토사구팽인가, 밀실야합인가. 장 의원이 빈손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장 의원과 윤 대통령의 지난 6일 만남이 불출마 요구를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원 “위성정당 비례제 퇴출시켜라”

### 민주당 소속 21명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12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빚수’ 위성정당 비례제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 중 21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당리·당략보다 민심을 우선하고 실리를 버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중 박수기 의원은 ‘위성정당 비례제 퇴출’에는 동의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채택에 대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

고 보고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광주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역사를 되돌려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줬던 위성정당 비례제를 이제는 과감히 퇴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며 “그때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